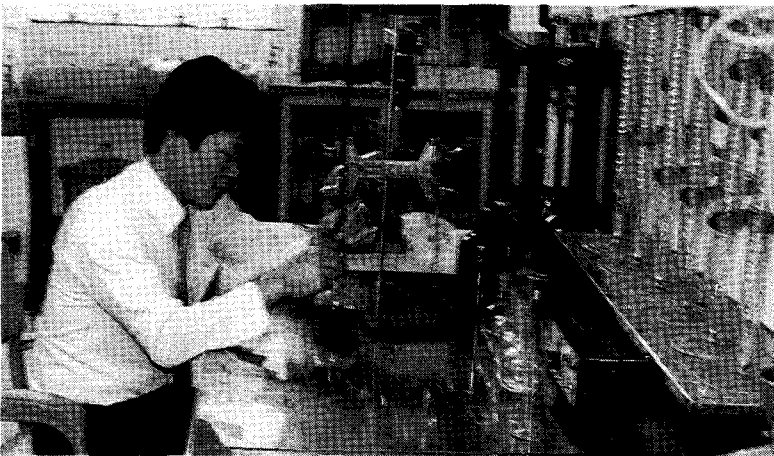


우리 폐수에 맞는 균체개발에 성공

■ 편집부



tem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곳엔 거액이 투자된 실험실, 균 분류 축출에 필요한 무균실, 약품 보관이 용이한 약품창고, 아담한 사무실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사무실은 대표 양익배사장의 독특한 운영방침인 전직원 직위로테이션제 아래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화랑을 지켜보아온 사람들은 화랑의 시작이 미약했지만 번창하는 모습에 눈을 크게 뜨고는 한다고 한다.

“따르릉”

“네, 화랑환경의 미스터양입니다.”

“.....”

“폐수처리장의 상태를 보고 실험과정도 거쳐야합니다.”

“.....”

“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는 양익배 사장. 그는 자신을 미스터양이라 칭하며 화랑약품의 젊은 이미지를 관철시키려 한다.

그는 환경 위생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산하의 모기업에서 환경업계

▲ 실험광경



花郎環境藥品(株)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105

☎ 679-3391~2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술을 꽃피우며 세계로 진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세운 화랑환경약품주식회사를 찾아 기사년의 환경계 첫항해를 시작해보자.

화랑은 사훈 人和, 誠實, 創意를 바탕으로 환경업을 시작한지 만 4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에 옮긴 이곳 사무실은 장차 세계로 나갈 의지를 펴기에 충분치는 않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더욱 다져나갈 수 있는 소규모 종합 Sys-

토목소식

사무실이전

화랑환경약품(주)

BPS제품으로 잘알려진 환경약품업체 화랑환경약품(주)(대표·양익배)가 그동안 다져온 기술을 바탕으로 사세를 크게 확장하여 지난 12월17일 종전의 문래동 사무실에서 당산동에 마련한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화랑의 원대한 포부를 펴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105
대성빌딩 401호
전화: 679-3391~2
(전과동일)

(주)협력사

정수, 폐수처리 여과제 제조업체로서 환경분야에 기여해온 주식회사협력사(대표·김갑수)가 많은 관계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세를 확장하고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여 새해에는 더욱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354-20(남광빌딩201)
전화: 817-1882, 817-1883
FAX: (02) 817-0603

를 체험하며 현장경험을 쌓아왔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자료를 모았다. 환경 미생물에 관한 문헌수집이 미·일 등지로부터 10여년 전의 것에서 현재 것까지 정리되어 있다고 자랑이다. 정부요원, 학계인사와 협의하여 활성오니처리와 미생물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그의 사업 비전중의 하나이다. 사업장의 환경관리인들이 마땅히 참고할 서적이 없어도 민하는 실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그에 맞는 미생물을 발견하고 처방해온 화랑의 활약이 잘 접목된 결과가 되리라 생각하며 그 지침서의 출간을 기대해보자.

이외에 고도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기술용역을 극대화 하는것이 화랑의 첫 사업계획이다.

둘째는 수산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첫사업으로 하천의 오염을 막고, 이번에는 우수 프랑크톤을 다량 배양하여 양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선호되는 무공해 물고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출도 하여 국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년여에 걸쳐 S대학의 C박사와 실험을 거듭해 왔다고 한다. 양사장은 화랑의 모든 기술을 총합하여 「응용미생물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라 한다.

'88년, 지난해에는 앞서 말한 사업계획에 근접하도록 준비를 해왔다. '89년에도 계속하여 연구실 운영을 위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침서를 펴내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개발품을 제품화할 계획이며 양어장관계의 일

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무실의 층원도 해야한다고, 올해말에 화랑을 지켜보는이들은 또 한번 화랑을 팔목상대해야 할 것 같다.

화랑의 신개발품인 미생물제제는 유전인자를 이용한 Bacteria와 Protozoa의 구성군체로서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일반 Bacteria군체보다 pH 고농도의 폐수에 강력한 저항력을 갖고 있으므로 Seeding시간 단축및 원가절감으로 폐수처리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화랑의 제품은 활성오니처리장엔 어느곳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BPS제품은 45개처에 공급되고 있다. 올해 중반기에는 현재 실험 완료기에 있는 신제품 BPS-HR이 제품화되리라 내다본다. “제품의 원료및 개발자로부터 균체만들기까지 순수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첫번째 회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는 화랑대표의 말이다.

균조성의 난제 때문에 수입품이 난무하는 본업계에 다소의 서글픔이 있지만 환경관리인의 자질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리라 보며 본사 제품의 용기등 몇가지 과제만 해결되면 해외에 수출하려고도 생각하고 있다 한다.

양사장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활성오니처리법에 대해 관련 학과의 학습과정에 현장실습을 강화함이 절실하고 환경관리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및 지식습득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말한다. 그리고 본 미생물분야도 속히 정부차원의 지원 품목으로 설정되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고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